

# 가정철학의 실천적 생활 연계를 위한 연구\*

## A Study for Connection of Practical Life and Philosophy of Household Management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서미란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지영숙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  
*Doctoral Course : Mi-ran, Seo*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  
*Prof. : Young-Sook, Chi*

### 〈목 차〉

- |                           |                      |
|---------------------------|----------------------|
| I. 서론                     | V. 미래를 향한 가정철학과 실천지침 |
| II. 가정철학의 특수성             | VI. 결론               |
| III. 가정철학의 주요 관점들         | 참고문헌                 |
| IV. 가정철학의 역할 및 실천적 생활 연계성 |                      |

### 〈Abstract〉

This paper gropes how to connect philosophy of household management(PHM) to real life. PHM is to think and to act for better quality of life, so PHM should contain not only theory but also practice in itself. In that sense, PHM is consist of two parts: one is viewpoints how to deal with home management and the other is practice.

This paper presents 5 main viewpoints of PHM. Then, it explains PHM can connect with education of human nature, and ecological value in PHM can connect with practice of life. Also, it proposes a guide for practice.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I. 서론

가정은 개인을 인간적으로 성숙시켜 하나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개인은 진실한 의미에서의 복지감을 얻을 수 없으며, 특히 어린 시절에 겪은 불행한 가정생활의 경험은 그 개인의 평생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정의 건전성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성을 이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가정 현상은 어떠한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독거노인 문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 과도한 교육열, 경제난과 가정 불화, 가출 등 가정을 단위로 하여 일어나는 이같은 문제들은 갈수록 급증하며 심각해지고 있어서 사회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가정단위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때마다 많은 비판과 문제의 원인 분석, 그리고 개선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반복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면, 이런 가정의 문제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선이나 변화는 미비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가정의 건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의 관심과 개개인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오늘날 가정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무엇보다 바람직한 생활가치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가정의 건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현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가정 운영 이념을 모색하고 생활과 연계되는 이의 실천 방법을 가정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가정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철학(家政哲學)은 가정(家庭)이란 場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각 가족원 개인의 삶의 의미를 형성하고 비전을 설정하며, 생활방식과 행동방식을 선택하게 하는데 있어서 근본

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유태인의 가정철학이나 케네디家の 가정철학, 과거 전통가정들이 지니고 있었던 가훈 등은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각 가정이 그 각각의 처한 상황 속에서 현대 사회에 바람직한 가정철학을 정립하고 의미 있는 가정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것은 개인과 사회를 안정시키고 성숙시키는데 있어서 보다 본질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철학은 생활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생활 속에서 역할하는 사고 행위로 생활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정철학은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생활의 과정에 있어서 순간의 생활현상과 문제에 대처해 가는 사소한 선택까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생활 판단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정철학의 구성은 삶의 방향점, 즉 비전과 연계되는 생활상의 여러 관점의 형성과, 그리고 삶의 과정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실천행동양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생활 속에서의 가정철학은 실천에 의해서 비로소 그 존립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철학이 토대로 삼고 있는 생활이란 場은 순수 학문영역과 달리 사고와 실천을 이분화 하여 개별화시킬 수 없는 곳으로, 思考 없는 행동은 있을 수 없으며, 실천 없는 思考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정철학의 실천적 성격과 실생활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생활에서 가정철학이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참고적으로 이 논문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 2권 2호의 "현대 가정의 가정철학 정립을 위한 연구"의 후속 논문을 밝힌다.

## II. 가정철학의 특수성

현재까지 가정철학(家政哲學)에 대하여 뚜렷하게 약속된 정의는 없다. 본 연구자는 그 동안의 관련연구들(공인숙 외:1996, 세키구치 후사:1996, 문숙재:

1996)과 본인의 가정철학 정립을 위한 연구과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정철학의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家政哲學이란 家庭이란 단위적 입장에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적 완성을 돕고, 인간과 인간의 본질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친화성을 높이며,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는 운영과 관리의 묘책을 열어줄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한 사고행위와 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생활이란 실천선상에서 가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철학적 사고, 즉 근원적 사고를 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총체적인 맥락에서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가정철학의 개념에는 가정생활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원리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의식화시키는 작업과, 이렇게 의식화된 가정 운영 이념을 생활 현상 속에 실천해 나가는 실천 작업을 포함한다. 그리고 가정철학은 미시적으로는 가족 성원들의 개인적 자유와 주체성을 존중하면서도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단위로 조화될 수 있는 가정 운영 원리의 발견과, 거시적으로는 각 가정의 운영이념과 가치가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화합될 수 있는 방법이나 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공동체적 원리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가정철학에서는 개인과 가정, 가정과 사회를 이원화시켜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를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시각에서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조화시킬 수 있는 원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정철학은 가정의 도덕성, 생활규범, 생활윤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향까지를 제시해주는 규범철학이자 실천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정철학은 사고를 깊이있게 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생활상의 제문제를 해명하거나 심화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그에 의해 실제 생활상에 유효한 적극적, 실천적 역할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가정철학은 philosophy가 아닌 philosophizer(철학하는 행위)라는 동사형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것은 '가정철학'이 '知識愛'로 그치는

순수한 학문의 형태라기 보다는, 일상생활의 살아가는 방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고민하고 그로부터 얻은 결과를 행하는 실천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정생활은 삶의 주체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발달 과정을 자신의 의지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서, 어떤 가정환경으로 구현되든지 그것은 창조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생활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 운영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때 노력한다는 의미에는 사고와 실천이 모두 포함된다. 이것은 곧 가정철학에서 정립된 관점들이 실천선상에서 운용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렇게 체계화된 가정 운영 이념이나 원리가 실천 행동으로 옮겨진 결과로서 가정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현실을 바탕으로 실천과 이론이 일원화된 가정철학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철학의 실천적 성격은 실학(實學)의 實事求是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實事란 실제로 일을 행한다는 것이며, 求是란 바른 것을 구한다는 뜻으로 이것은 생각하는 면과 실천하는 면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III. 가정철학의 주요 관점들

가정철학의 목적은 가족원 개개인과 그들의 공동체인 가정의 조화로운 성장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지침이나 사고방식의 기준은 인간의 복지와, 인간적 삶의 완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철학은 이런 목적 하에 다각적인 가정생활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관점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 존재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觀은 모든 사고와 행동의 근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로부터 방법도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觀이 정립되어 있다면 보다 현명하고 체계적인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다운 삶의 올바른 전개를 위해 가정운영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로 생존에

필수적인 경제의 문제, 그리고 삶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실태 측면에서의 시간과 공간(환경)의 문제,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인간의 생활 중 인간의 기본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윤리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 다섯 가지 즉 인간, 경제, 시간, 공간, 윤리에 대한 기본 관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들 다섯 가지 요인은 가정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적 요소들로서, 인간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관점들간의 균형과 조화가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5가지 관점 중 인간관, 경제관, 환경관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 2권 2호의 "현대가정의 가정철학 정립을 위한 연구"에 소개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3가지 관점에 대해서는 간단히 요약하고, 여기서는 시간관, 윤리관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1. 인간관

가정을 인간복지의 일차적 場으로 유지, 재생시키기 위하여 가정철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인간의 공동체인 가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가정철학에서 지향할 수 있는 인간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화로운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조화로운 인간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조화적 인간상은 개인 내적으로는 육체와 정신의 건강한 조화, 이성과 본능의 조화,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당연히 지향되어야 한다는 사상의 근거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개인과 가족, 개인과 사회 뿐 아니라 가정과 가정,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마저도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된다.

둘째, 인간 존재를 긍정하며, 개개의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간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에서는 평등한 인간관을 갖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인간존재의 긍정과 높은 자존감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기본이 된다. 특히 자존감의 강화는 어릴 적의 긍정적인 경험과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큰 영향을 받기에 가정에서의 자존감 존중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셋째, 자주적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가짐으로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현실적이고 실천적 주체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자아라는 주체가 상실된 인간은 규범적 틀에 얽매인 충실한 가족구성원은 될 수 있어도 사회발전을 위한 공동체의식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주성을 지닌 존재이며 선악의 주체자로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특히 오늘날은 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아실현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인의 독창적 개성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조화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자주성을 지닌 존재로서 현재중심적인 실천의지를 강조하는 가정철학의 인간관은 오늘날 요구되는 민주적 가정문화를 창조해 나가는데 있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2. 경제관

경제관이란 경제를 보는 눈으로, 경제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경제목적의 범위나 내용도 달라지며 경제활동상의 규범체계도 달라지게 된다.

가정에서의 경제 활동은 가족원의 행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단적 성격이 강하며, 이에 가정에서의 재물의 의미 역시 축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수호에 그 참의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정철학이 모색하고자 하는 경제관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기업적 경제관으로부터 구별되는 공존공생의 경제관을 전제한다.

즉 첫째, 가정철학의 경제관은 협동심을 바탕으로 한 공생공영의 경제관을 지향함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서로가 남을 이롭게 하고 자신도 이로움을 얻기 위해서 상부상조를 통한 협동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립과 경쟁 대신에 공동체의 조화를 바탕으로 공영을 위한 공생논리를 추구한다.

둘째, 가정철학의 경제관에서는 그 중심축을 경제 중심의 경제행위로부터 인간중심의 경제 행위로 옮기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은 물질추구, 편리지향이라는 목표를 향해 소비적으로 치달았던 경제행위의 목표를 가정 공동의 요구와 가족원 개개인의 자아실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경제행위를 인간완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셋째, 가정에서의 자원관리는 효율성에 그 기준을 두기보다는 사회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거시적 측면에서 지속성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된 윤리적 경제관으로 오늘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정 필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개개의 가정경제를 보는 눈 역시 사회현상이라는 보다 큰 통찰력 속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이에 개개의 가정경제 행위는 사회적으로 이로운 쪽으로 조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자기 가족만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가족 이기주의적인 경제 행위는 이웃과의 화목을 깨고 불화하게 되며, 공동체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정과 사회에 부정적인 환경으로 되돌아오음을 우리는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 3. 환경관

환경파괴와 환경고갈의 문제가 심각한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물질 소비중심의 생활을 환경친화적이며 검소한 생활양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가정단위에서의 바람직한 환경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경관을 어떻게 갖는가는 자원을 보는 관점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자원 사용 방법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삶의 양식과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환경위기로 볼 때 21세기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반성이 필요하고, 그 결과는 인간중심주의로의 탈피와 생태학

적 입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중심주의적 세계관으로의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박이문, 1993; 유영주, 이정연, 1995 재인용).

이런 점에서 자연중심의 자연관, 겸허한 자연관의 확립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同一體의식에서 이해하며, 자연을 인간적 삶을 생성, 발전시키는 동반자로서의 생명력으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은 이런 생명중시적 환경관을 갖고 환경윤리를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은 본래 자본중심적이라기 보다는 생명 중심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은 다음 세대에게 생활의 기본적 원리를 훈련하는 場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환경관을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에 가정에서 자연환경에 대해 도구적, 자본적 가치를 부여해 바라보기보다는 생명적 가치를 지닌 생물체로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가정에서의 이런 생명중시적 환경관은 자원고갈의 시대에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다.

### 4. 시간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개개인의 생활의 모습을 다르게 만들어 주며, 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시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명한 시간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효율성과 능률성을 강조하여,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더 빨리 일할 수 있는 효율적 시간 사용 방법과 그 전략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가정철학적 시간관은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하여 속도와 능률보다는, 무슨 일을 하고 왜 그 일을 하는가를 인식하고, 효율성에 의한 시간의 최대한 활용을 추구하기보다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즉 첫째, 가정에서는 인간과 시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본중심적 시간관을 지향함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간과 시간의 근본적 관계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그 개인의 삶을 위해 시간의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서, 시간에 인간의 삶이 종속되는 것보다 인간적 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시간관은 물리적 시간에 인간이 얽매어 종속되기보다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보다 인간적이고 의미 있는 생활시간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한다.

둘째로, 가정에서는 상대적 시간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간의 본질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는 것으로, 절대성 시간에서는 양극적인 대립이 수반되기에 밤과 낮을 독립적 시간개념으로 보나, 상대성 시간에는 극과 극이 성립되지 않기에 밤과 낮은 그저 상대적 시간개념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20세는 절대적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10세와 30세에 의해 상대적 의미를 갖게 되며, 마찬가지로 60세 역시 절대적인 늙음이 아니라 70세에 비해 상대적 젊음이 됨으로써 보다 여유있게 60대를 즐기며 70대를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계학(1994:44)은 한국 전통 사회의 고유한 시간관은 원적 시간관으로 현재의 순간에 과거와 미래가 한데 융합된 삼위일체적 특성을 지닌 가운데 개인의 현재 실천적 결단이 중요시되는 성격을 띠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인간 주체적, 상대적 시간관적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 주체적 시간관은 인간이 서 있는 현재(now)를 중시하게 하며, 상대적 시간관은 과거, 현재, 미래를 원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셋째로 가정은 평생에 걸친 인간발달의 의미를 살려내고 실현하는 곳으로서, 가정철학에서는 삶의 완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룸(成)의 시간관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간의 속성에 있어서 인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주관적 시간을 강조하지만 만일 개개인이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삶은 신체적, 정신적인 평생성

장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의 질서 속에 있게 되며, 자연 역시 법칙적인 순환을 되풀이하는 듯 하나 결코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완성세계를 향하여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룸의 시간관은 인간 개개인의 생이 개개의 완성을 향해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봄으로써, 인간의 신체적 변화와 여러 가지 발달과업, 삶의 부정적, 긍정적 경험 등을 인간 삶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지닌 시간의 질서 속에서 긍정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모색된 시간관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인간적 삶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향해 있는 것으로서, 인간적인 생활의 실현과 인간적 삶의 완성에 접근하기 위한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총체적인 시간관을 바탕으로 가정에서는 인생이란 거시적 관점에서의 시간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속에서의 시간관리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윤리관

인간은 외형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내면적인 성질이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윤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야 하며, 이에 약속과 질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윤리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질서와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존재하는 실천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혹은 도덕적 규범이라는 내면적인 판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인간질서를 따르고 만들어감으로써 생활을 아름답게 질서 지워준다. 이런 점에서 윤리와 그 본질인 도덕성은 사회의 건강함과 관계가 있으며, 생활예절과 문화현상은 윤리의 가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의 생활 경험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자각하고, 윤리감을 익히며, 윤리관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 부모의 윤리관의 영향 아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현

재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생활예절의 해이, 생활문화의 변질과 윤리의 부재에서 오는 갖가지 사회적 모순과 비리, 가족 이기주의와 일탈행동 등은 근본적으로 가정에서의 윤리관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윤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도덕적 가치는 시대에 따라 불변하는 보편적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가치의 준거는 인간의 존재 원리에서 찾아져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에 인간의 존재원리를 생명의 원리로 보고, 도덕적 가치의 준거로서 생명가치와 생명가치를 복돋우는 원리를 제안하고 그 안에서 윤리관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사회현상은 생명가치보다는 이성적 가치, 합리적 가치가 숭상되며, 자연보다는 기계친화적 생활환경이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성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계적 메커니즘에 의해 생활이 지배받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인성 역시 기계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계적 완벽주의, 합리주의에 도전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존재 이유인 생명마저도 경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도덕적 가치인 생명가치에 대한 인식마저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기보다는 도덕적 존재라는 사실(추병완, 1998)이 오늘의 시점에서 재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명가치를 복돋우는 원리를 현실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가정철학의 윤리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개개인의 개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고 살려주는 것은 바로 생명가치를 살리는 것이며, 이것은 곧 인간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된다. 반면에 인간의 개성을 억압하고 획일화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가치를 없애므로써 특징이 없는 그저 그런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은 개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윤리적 가치판단의 주체는 개인에게 있으며, 주체성이 확립될 때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책임감도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개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실질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정윤리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이고, 상황에 따라 융통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생명체의 성장과 변화라는 속성에 따라 인성발달에 근거한 윤리관을 반영한 것이다.

가정에서 펼쳐지는 부부윤리, 부모-자녀의 윤리는 인성발달을 고려하는 맥락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간의 생활윤리가 실천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윤리의 출발은 가족간에 올바른 관계 맺음이라고 할 수 있다. 김신일(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1996)은 가정은 가장 중요한 윤리학습의 場으로서, 그 윤리의 출발은 '관계'라고 하였다. 가족간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배려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형성은 곧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는 윤리 실행이며, 부모가 부모답게 행동하기 위해 그 역할을 배우는 것도 곧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인성발달에 도움을 주는 윤리 실행이 된다. 또한 가족간의 생활예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가정에 맞는 생활예절을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 역시 바람직한 관계형성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가치에 근거한 생활윤리는 개개의 존재를 존중하기에 따뜻하며 복지감을 높여준다. 그리고 전체적인 생명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생명 존중의 윤리는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공동체적 윤리로 승화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생태윤리도 확장된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 존중의 윤리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특히 요구되는 윤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는 이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활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에 가정에서의 생활윤리가 중요하다. 즉 윤리적 이념의 최후 준거는 인간의 존재 원리이지만,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소한 덕목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그 실천 의지의 단련도, 그 지속성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기본적인 윤리적 덕목들, 보편적인

가치들의 교육이 형식주의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몸에 배지 않으며 진부하다는 생각으로 생활과 유리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의 場인 가정 속에서의 윤리적 생활을 통해 윤리적 가치를 계승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위의 가정철학의 관점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무의도적인 생활태도나 행동, 규범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에 부모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가정교육의 내용이 됨을 인식하고, 생활학습장의 주체로서 모델이 되는 부모 자신부터 삶의 태도와 가치를 바르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것은 자녀가 접하는 가정환경 문화를 바람직하게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것이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가정철학에서 지향해야 할 주요 관점들

	주요 관점의 정립 내용
인간관	조화로운 인간관, 개인의 존엄성, 자주적 존재
경제관	공영공생의 경제관, 인간중심의 경제관, 윤리적 경제관
시간관	인본중심적 시간관, 상대적 시간관, 이름(成)의 시간관
환경관	자연존중의 환경관, 생명중시적 환경관, 전체론적·자연친화적 환경관
윤리관	생명존중의 가치관, 민주적 가정관, 실천적 윤리관

#### IV. 가정철학의 역할 및 실천적 생활 연계성

##### 1. 인성교육과의 연계

사회의 건강함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인성과 관련이 있다. 가정이 인성형성의 場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간발달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바른 습관과 성격은 3-8세에 90% 이상이 형성되며(김두선, 1994), 인간의 지능, 사회성, 도덕성 등은 10대 이전이나 10대 전후에 결정적으로 발달, 형성되어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조복희 외, 1991) 이 시기에 경험하는 교육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가정교육이란 어떤 특정한 교육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전수하고자 하는 가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계학, 1994), 그 외에 생활의 기본적 원리를 익히는 생활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교육 속에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가정 교육의 내용과 실체를 무시하거나, 가정교육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지식교육은 물론 인성교육, 정서교육까지 그 내용을 담당한다는 각종 교육기관과 학원에 자녀를 열성적으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전면적 생활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역시 가정의 몫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이 시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場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선 부모들의 가정철학함(philosophize)이 필요하다. 부모들은 가정철학을 통해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음의 예는 주부의 인성교육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가정 안의 참교육 실천을 가능하게 함을 보여 주는 사례로서, 가정철학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집 주위의 모든 자연환경이 아이(6세남)의 놀이감이 되고 지능을 길러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까치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덧셈을 가르치고 나무를 보고 뿔셈개념을 가르치는 가운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환경문제를 가르친다. 내가 직접 개발한 측우기를 가지고 자연의 이치를 일러준다. 아이의 관찰력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내가 먼저 아이의 시각에서 주위의 모든 사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하니 아이는 나와 같이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자연관찰을 통해 삐꾸기 소리, 해뜨는 것, 고압전류, 나뭇 등을 직접 보고 들으며 스스로 느끼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커간다. 지식은 앞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얻어지므로 그 활용능력을 키우려면 인간교육이 우선이고 중요하다. 이런 것은 사설 학원에서는 배우지 못한다.”(30대 주부,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조기교육논란’, 1994.6.11; 여성한국사회학회, 1995:210 재인용).

이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가정철학이 부모 자신의 인성발달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인성발달이란 인간화 과정인 동시에 의식의 중심인 자아의 발달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자아의 발달은 지적, 정리적 성장을 통해 평생에 걸쳐 단계적인 질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이민태1996). 이에 인성발달은 완성되는 종착점이 아니라 개성을 찾는 개인화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심리적 발달로서의 인성발달이 계속됨으로써 자기 실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모 자신이 일상생활에서의 철학함을 통해 얻는 사고와 경험으로 지속적인 인성발달을 하고, 보다 차원 높은 자아의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부모 자신의 인생에서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성발달을 돕는데 있어서도 가장 좋은 교육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런 경험은 자녀의 자기실현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교육자료인 것이다.

오늘의 인성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민주사회에 걸맞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공존법칙과 가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요청되는 자녀교육은 21세기를 살아갈 새로운 인간형의 형성이

다. 즉 더불어 사는 삶의 원리와 규범, 인간존중사상을 체득시키는 한편 자주적 존재로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의식, 사고력, 적응력, 창의성을 키우는 것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감성도 키워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들이 할 일은 지금까지의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생활 교육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여성한국사회학회편, 1995:209). 이런 점에서 가정철학은 그 유용한 해답이 될 수 있다.

## 2. 생태적 가치관과 생활 행동의 연계

가정철학이 지향하고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는 가치는 생태적 가치관이다. 생태적 가치관은 모든 개개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 생명, 생명과 물리적 환경 등의 모든 관계를相生하는 유기적 관계 구조로 보는 것이다. 이런 생태적 가치관 속에서는 사람이나 환경 등 접하게 되는 모든 대상을 존중하게 되는 겸허한 생활 자세를 가져오게 하며, 만나게 되는 대상이나 물리적 환경 역시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기에 단지 도구화, 수단화시킬 수만은 없게 된다. 또한 하나의 행동 역시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유기적 관계 속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기에 이기적 행동이나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행동과 몸가짐을 갖게 한다.

과거에는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좁은 범위에서 봄으로써 적자생존과 경쟁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사회에 반영됨으로써 사회는 각박해지고 삶의 질은 긴장과 위태로움을 기반으로 추구되었다. 개인들은 살아남기 위한 긴장 속에 끊임 없이 노력하면서 자기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삶의 중요한 의미를 상실한 채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며, 경쟁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발전은 곧 나의 손해라는 관계 논리에 의해 개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삭막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연의 세계를 더 넓게 통찰하면 전체적인 환경은 상생(相生)과 공존(共存)의 세계로 되어있으며, 이런 가치관 속에서는 인간관계 역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스티븐코비(1999)는 가족들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확고한 기초는 바로 승/승의 태도로, 이것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상호 이익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협조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배양한다고 하였다. 그에 반해 자기가 더 큰 사람이고 자기가 더 강한 사람이라고 확신하여, 모든 일을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는 승/패의 관계나, 자신을 종속적 관계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패/승의 관계는 결국 나도 지고 상대방도 지는 패/패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런 승/승의 관계 역시 유기적 관계와 상생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관에서는 자연스러운 관계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생태적 가치관은 현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람들간의 관계의 질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기적인 방향에서 상생적 방향으로의 생활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V. 미래를 향한 가정철학과 실천지침

인간이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보다 살기 좋은 미래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미래는 막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속에 들어있다. 즉 현재의 삶 속에는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지식, 지혜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 구현될 수 있는 수많은 생활상 중 하나로 다가가는 방향성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현실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또한 현실의 시점에서 미래의 사회 흐름을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

21세기 세계체제는 그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을 더욱 조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이기주의적 생활양식이 만연될 가능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만약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일반적인 것으로서 자리잡게 된다면, 사회는 따뜻한 정서적 교류와 애정적 관계가 결핍된 삭막한 곳으로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벌한 경쟁과 갈등이 지배하는 이른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場으로

변질되어 버릴 위험이 크다(신용하, 장경섭, 1996). 따라서 미래사회를 복지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는, 서로를 배려하며 더불어 살려고 하는 공동체적 생활 양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가정은 공동체적 생활양식과 문화를 배우고 실천하며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 기본단위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최근 반세기 동안에 가족제도가 크게 변동하고 가족해체가 광범위하게 진전되자 가족의 개념과 본질마저도 바뀌고 있다. 엘빈토플러는 이미 미국에서는 부모가 두 자녀를 데리고 행복한 4인 가족의 전형을 보이는 것은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으며, 가족을 공동체라고 간주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부의 미국 미래학자들은 그들의 사회경향을 기준으로 하여 후진국, 중진국 사람들에 대하여 가족에 대한 관념을 바꾸자고 권고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21세기가 되면 가족도 게젤샤프트의 하나라고 보게 될 것이며, 이에 가족해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객관적 추세로 인지하여 개인 단위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게끔 생각을 바꿀 것을 시사하기도 하는 것이다(신용하 외, 1996).

그 예로 서구의 국가들에서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성(性)으로만 맺을 뿐 생활을 공유하고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동거형태가 만연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용해 정자은행 등을 통해 자녀를 갖는 싱글마더(single mother)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생산 구조가 나타남으로써, 가족에 대한 기존의 개념에 대한 수정과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형태나 형성 조건이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족원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다른 물질적 조건보다도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살 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며, 문제들을 함께 극복해 갈 때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진다는 것이다. 가정은 이런 공동체 문화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인간의 집단 단위이다. 특히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본래 가족간의 정신적

유대와 응집이 매우 강하여 가족간에 이해관계를 초월한 하나의 자기 회생적 공동체 형태로 존재해 왔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부부나 부모-자녀간의 가족관계는 일본과 중국의 가족제도 보다 훨씬 평등한 모습을 보이며 가족제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조직되어 있다(신용하 外, 1996). 따라서 한국은 진정한 공동체의 원형인 가정 속에서 살아 왔으며, 서양의 가족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본질적인 공동체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신을 미래에도 살려 더욱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인간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의 하나로써 가정철학의 정립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정철학을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지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은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서 수호하기 위한 場으로 역할 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오늘의 가정현실은 너무도 경쟁적인 사회 현실에 매달려 집은 하숙집처럼 되었고, 가족원은 감정적 이산가족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가족은 있으나 가정(home)은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가정이 인간을 수호하는 場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간에 오가는 친밀한 감정적 교류가 있어야 하며, 건강한 감정적 교류를 위해서는 인간성에 대한 자각과 신뢰를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가정운영자는 바람직한 인간관에 근거하여 각 가족원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개성을 존중해 주는 생활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점 냉정해지고 있는 사회적 인간관계와는 달리 인간수호적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간수호적 인간관계란 유순함과 겸손함의 실천일 수 있다. 최민홍(1990)은 유순함과 겸손함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포용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결속과 화목을 가져오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 유순함과 겸손함의 실천 근거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자신의 내면 깊이 인식하는 데서 찾아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식의 출발은 자기자신

에 대한 존엄의 절실함에서 비롯된다. 즉 자존감의 인식과 그 실천을 기초로 하여 다른 주변 사람들의 존재 역시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개인의 존엄성의 인식 위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사결정 과정을 갖는 가정문화의 확립은 민주적인 사회문화 형성에 기초가 될 것이다.

둘째, 각 가정의 생활터전으로 자리잡고 있는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꿈으로써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소비 지향적인 문화에서 근검, 절제, 절약이 미덕이 되는 생활문화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대물림 등의 전통을 다시 살리는 것은 가정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근검한 생활 속에서도 풍요로운 가정문화를 살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소비가 그저 상품의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결부됨으로써 소비 자체가 중요한 생명 과정이 됨을 인식한다면, 물질적 자원이나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환경친화적 사고에 근거한 근검, 절약 문화는 자원 고갈 시대에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기계 문명에서 찾을 수 없는 보다 성숙한 생활문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가정은 개인과 사회, 더 나아가 모든 만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단위라는 거시적인 시각 속에서,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자각하고 이를 찾아 살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한가지 예로 가정을 형성시키는 본질이자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행동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가정 속에서 우주적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생태학적인 접근에 의하면 가족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은 단순히 가정이란 좁은 울타리가 아니라 친구, 친척, 지역, 사회, 국가, 세계 나아가서는 우주로 까지 확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 개개인 자체를 우주적 존재로서 파악하기도 한다. 이 때

우주적 존재로 자각되고 승화된 존재들간의 사랑은 세상 만물에 대한 사랑을 함축하게 된다.

따라서 우주적 사랑이란 가족 개개인과 가정과 접촉하는 모든 환경들을 우주적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며, 우주로까지 확대되는 넓은 안목 속에서 모든 개체들이 자신의 생명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화로운 삶이란 인간 개개인의 차원에서 지, 덕, 체, 이성, 감정 등의 내면적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가정에서는 부부, 부모-자녀 등의 가족관계를 조화롭게 엮어나가는 것이다. 또한 가정과 사회 역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인식하고 조화로운 생활을 구현하는 것이다.

미래 사회는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구조적 흐름에 있어서 인간 개개인의 분자화, 개별화를 심화시키고 있기에 더욱 쓸쓸하고 불행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은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場일 수 있으며, 가정이 이런 역할을 상실하지 않도록 가정의 의미와 기능, 구조적 형태를 새로운 차원에서 복원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흐름에 따라 가족과 생활방식의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 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향점으로서 미래의 한국이 목표로 삼아야 할 이상적 가정 운영 이념은 가족 성원들의 개인적 자유와 주체성이 존중될 뿐 아니라, 또한 가족 성원들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협동을 통하여 아름답고 유익한 생활체를 만드는 일이다. 예로부터 한국의 사상은 실리(實利)와 도덕(道德)을 이원화하지 않는 조화의 원리를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보다 나은 미래의 생활을 지향하는 가정철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정립되어야 하며, 성실한 인간을 만드는 인간화와 공동체적 가치들을 지향하는 이런 철학적 사고는 경제적 풍요와 민주적 공동참여에 앞서 더욱 중요하게 자리해야 할 것이다.

## VI. 결 론

산업화시기에 가정은 이해타산적이고 경쟁적인 외부세계와 분리된 안식처로서 가족 구성원의 사랑과 친밀성의 장소로 상징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가정마저도 이해타산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태도에 의해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혼의 만연이나 가출, 유기 등의 여러 가족 문제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의식의 변화에서 그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박연수, 1997).

세키구치 후사(1996) 역시 가족붕괴 경향의 주요한 원인을 인간의 물상화와 이기주의로 인하여 병들어 있는 현대인의 정신상태로 보고 있다. 즉 부부관계의 개인화, 희박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기능적 합리성의 우선화 등에 의해 가족이 내면으로부터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철학의 정립은 희박해지고 있는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살려 내고 응집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있어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성숙한 가정철학은 여유와 멋이 있는 가정문화를 만들게 하며,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가꾸어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적 관점을 제공한다.

또 가정철학은 말만으로 정립되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정철학이 실제 생활에서 제역할을 하려면 그저 숭고한 이념보다는 실천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가정철학의 정립과 소유가 필요하다.

진정한 삶의 행복과 성공은 가정의 행복과 성공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가정철학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가정철학은 현대사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정윤리의 보다 근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다원주의 사회에 맞게 더욱더 다양한 관점으로 가정철학에 접근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 실천의 가능성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1) 김두선(1994). 국제화시대의 가정교육-부모가 곧 아이 자녀도 끝다, 서울:집문당.
- 2) 문숙재, 광인숙, 김순미, 홍성희, 윤숙현(1996). 새로운 가정경영, 서울:학지사.
- 3) 박연수(1997). 인생교육의 지침- 인간다운 삶과 전진한 사회로 가는 길, 집문당.
- 4) 세키구치 후사 외 편저. 김의숙, 장용선 공역 (1996). 가정철학, 서울:교문사.
- 5) 스티븐 코비 지음, 김경섭 역(1999).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김영사.
- 6)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위임(1996). 건강하고 미래가 있는 가정, 서울:한울터.
- 7) 신용하, 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서울: 지식산업사.
- 8)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1995).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서울:사회문화 연구소
- 9) 유영주, 이정연(1995). 가정학원론, 서울:신광출판사.
- 10) 이계학, 류혜영, 손직생, 이홍우(1994). 한국인의

전통가정 교육사상,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1) 이민태(1995). 한국인의 윤리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12) 조남국(1994). 한국사상과 경제윤리, 서울:교육과학사.
- 13)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1991). 인간발달, 서울:교문사.
- 14) 최민홍(1990). 한철학-한민족의 정신적 뿌리, 서울:성문사.
- 15) 한국국민윤리학회(1989). 사회사상과 윤리, 서울:형설출판사.

## 2. 정기간행물, 기타 자료집

- 1) 공인숙, 노영주, 성미애, 송혜림, 이승미, 이완정, 최연실 (1996). "기술에서 과학으로: 과학에서 인간으로", 「21세기를 향한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가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6-39쪽.
- 2) 추병완(1998). "시민정보사회의 윤리규범 확립과 그 사회적 기능", 21세기 시민정보사회 구축과 국가 경쟁력 강화전략 심포지움 자료.
- 3) 경향신문, 1997, 3, 27, 가정서 크는 도덕지능